



문해력, 그것이 알고 싶다!

초등부터 수능까지, 공부의 기본은 문해력

도대체 '문해력'이 뭐길래

요즘 곳곳에서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높대(高)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등의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려온다. '글'은 읽어도 '글'은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교대 문해력지원센터장인 엄훈 교수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중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해력이란 무엇일까?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생각'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 열쇠만 있으면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등을 잘 키울 수 있다.

초등 문해력 여든까지 간다

문해력은 학교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이다. 학교에 가면 모든 공부를 얻어오게 된다. 학교 공부란 읽기와 쓰기의 연속인 셈이다. 이에 문해력이 부족하면 공부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초기 문해력'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자 체계를 학습하고 독해 능력을 충분히 습득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읽기에 능숙하지 못한 아동은 이후 문해력 발달과 학업 성취 면에서 또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문해력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기에 초등 시기부터 꾸준히 닦아나가야 한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문해력을 키우는 두 가지 비법

많이 읽기보다 좋은 글 읽기

문해력전문가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문해력은 좋은 글을 읽는 경험으로 성장한다"며 **"좋은 글에 바탕을 둔 읽기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튼튼하고 오래가는 문해력을 기르는 첫째 방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좋은 글이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저절로 길러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이다.** 다양한 갈래, 양질의 글을 읽을 때 비로소 문해력이 길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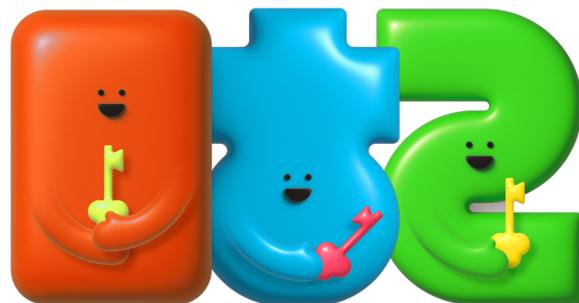
다행히, 문해력은 한번 뒤쳐진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능력이 아니다. 다채로운 글을 자주 접하며 읽기, 쓰기에 흥미를 붙이다 보면 어느새 아이의 쑥 자란 문해력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무작정 읽기보다 체계적 읽기

좋은 글을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처음에는 문자를 해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출발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기, 꼼꼼히 읽기를 거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글을 읽을 때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글을 다 읽은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글을 잘 읽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좋은 글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해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EBS 「당신의 문해력」 강의
조병영 교수(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강력 추천!

문해력 교과서

초등 국어 1~6학년
이도영 외 9명 지음
각 권 12,000원

초등 공부의 시작은 문해력 키우기
현직 교사 1,000명이 추천한 학년별 문해력 교과서



알아보자!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초등 문해력

현직 초등학교 교사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창비교육에서 2022년 2월 18일~3월 14일까지 1,0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현직 교사들이 체감하는 초등학생의 문해력 실태를 조사했다. 설문 결과, 문해력 관련 각종 언론 보도가 과장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먼저 언론 보도와 비교해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수준을 묻는 질문에 91%**에 달하는 교사들이 언론 보도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교에는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느냐? 60%의 교사들이 마땅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학교 현장의 고민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과 관련한 질문에서 99%에 달하는 교사들이 읽기 교육 강화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글을 읽고 간단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책을 보는 것이 좋다**고 답해(70%) 교사들이 독후 활동을 문해력 향상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문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다양한 갈래의 글을 읽는 것(97%)과 각종 추천 도서 목록에 올라 있는 글을 읽는 것(90%)**을 꼽았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 다양한 갈래의 좋은 글을 읽고 간단한 독후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문해력 향상의 해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해력 교과서』를 먼저 체험한

교육 전문가, 작가, 학부모들의 강력 추천!

창비교육에서 『문해력 교과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튼튼한 자료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지철(충청남도 교육감)

『문해력 교과서』는 아이들이 체험적 독서를 하도록 돕습니다. 이 책으로 아이들은 평소에 쓰지 않는 읽기 근육을 단련하며 읽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송미경(동화 작가)

아이에게 문해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모든 부모에게 선물 같은 책입니다. 아이가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이 책을 권합니다.

-김민섭(작가)

다양한 갈래의 글을 마음껏 골라 읽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기분이에요. 학생들이 풍당 빠질 만한 흥미로운 작품들로만 쥘여 있어요.

-정현숙(초등 교사)

교사의 현장감! 직감! 체감!으로 말하는 초등 문해력

1.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20%의 문해력이 저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체감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는 문해력 저하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느냐?



3.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떤 형태의 책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4. 읽기 교육 강화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5. 동시, 동화, 생활문, 설명문 등 다양한 갈래의 글을 읽는 것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6. 어린이 추천 도서 목록에 선정된 좋은 글을 읽는 것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글 + 독후 활동 = 문해력 향상 ↑

체험! 초등 문해력 키우기

1~3학년 추천!

● 목기린 씨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화목 마을의 고슴도치 관장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또 목기린 씨로군!”

목기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요.

『문해력 교과서』
초등 국어 1학년
63~67쪽 수록



안녕하세요, 관장님?
9번지 목기린이예요.
버스로 여덟 정거장 거리를 늘 걸어 다니는,
가없는 목기린요!
저는 요즘 꿈에서조차 걷는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제 딱한 다리가 이불 속에서도
허우적대지 뭐예요?
마을버스 천장을 높여 주세요!
저도 버스 태워 주세요!

목기린 드림



친애하는 주민, 목기린 씨에게
그동안 먼 길을 건너라 불편을 겪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는 목기린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마을버스를 개조하는 것은 무리이니
한 대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평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목기린 씨가 출퇴근하시는 시간에 다닐 겁니다.
목기린 씨가 알아보고 타실 수 있도록 버스 창문에
아래의 글이 적힌 안내판을 붙이겠습니다.
‘목기린 씨, 타세요!’



● 목기린 씨가 고슴도치 관장님께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 목기린 씨의 사연을 듣고 한 기자가 목기린 씨를 인터뷰했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인터뷰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기자 버스를 못 타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목기린 마을버스 이 낮아 목이 긴 저는 탈 수가 없었어요.

기자 버스를 못 타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목기린 과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으니 계속 걸어 다녀야 했어요.

기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목기린 고슴도치 관장님께 를 써서 마을버스 천장을 높여 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제가 목기린인 것쯤은 아시겠죠?
오늘은 목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요.
하지만 전 계속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저는 매일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는 탈 수 없으니까요.

목기린 드림



● 비 오는 날, 회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비 오는 날 임복순

소리 지르고
떼쓰기도 잘하는 회재가
오늘따라 조용하다.

“회재야, 어디 아파?”

“비가 오잖아.
비가 뭐라 그러는지 듣고 있어.”

.....

아이들 눈이 빗방울처럼 동그래진다.

우리는 다 같이 눈 감고
비가 뭐라 그러는지 들어 보기로 한다.

『문해력 교과서』
초등 국어 2학년
109~112쪽 수록



● 빗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 이 시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 내가 회재가 되었다 생각해 보고 비가 뭐라고 그랬을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예 비가 하는 말: 온 세상을 깨끗하게 씻겨 줄 거야!

● 비가 하는 말: _____



● 남들과 다른 '나'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아몬드 손원평

『문해력 교과서』
초등 국어 6학년
19~24쪽 수록



먼저 아몬드 봉지를 집어 들고 그 안에 든 아몬드의 촉감을 느껴 본다. 포장지 아래로 만져지는 단단한 알맹이들이 고집스럽다. 봉지 윗부분을 가만히 뜯고 이중 처리된 지퍼를 연다. 눈은 감은 상태여야 한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봉투 안으로 코를 들이민다. 알게, 숨을 끊어서 들이쉬다. 향이 몸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아몬드 향이 깊이 들어왔을 때 반 줍 정도를 입 안에 털어 넣는다. 혀로 아몬드의 결을 느끼며 한동안 입 안에서 굴린다. 뽀족한 곳을 찔러도 보고 아몬드 표면의 흠을 혀로 훑어도 본다.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아몬드가 침에 불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젠 그저 클라이맥스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짧으면 시시하고, 길면 임팩트가 사라진다. 적당한 타이밍은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클라이맥스로 향해 갈 때는 아몬드가 점차 커지는 상상을 한다. 손톱만 한 아몬드가 포도알만큼, 키위만큼, 오렌지만큼, 수박만큼 점점 커진다. 이제 아몬드가 럭비공만큼 부풀었다. 바로 이때다. 와드득, 깨문다. 그러면 아그작 소리와 함께 멀고 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날아든 햇빛이 입 안으로 퍼져나간다.

굳이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아몬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식탁 위엔 삼시 세끼 아몬드가 올랐다. 피할 길은 없었다. 그러므로 먹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엄마는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내 머릿속의 아몬드도 커질 거라 생각했다. 그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중 하나였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두 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은한 어디께,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 당신은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 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 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였다. 증상이 너무 깊은 데다 나이가 너무 어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 없었고, 다른 발달 사항들에 문제가 없어 자폐 소견도 없었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 한다기보다, 잘 느끼질 못한다.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사람들처럼 말을 만들어 내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헛갈린다.

의사들은 선천적으로 내 머릿속의 아몬드, 그러니까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데다 뇌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입을 모았다. 편도체가 작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공포심을 잘 모르는 거다. 용감해서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소리다. 두려움이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차가 돌진해도 그대로 서 있는 멍청이라는 뜻이다. 나는 운이 더 나빴다. 공포심 둔화 외에 나처럼 전반적인 감정 불능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불행 중 다행은 이 정도로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도 딱히 지능 저하의 소견이 없다는 것 정도였다.

의사들은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 내 경우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중 몇은 꽤 솔직한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비를 벗겨 내는 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대학 병원 연구진들은 내가 자라날 때까지 여러 임상 실험을 하고, 학회에 보고를 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 왔다. 임상 참가비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처럼 내 이름도 뇌의 한 부분에 붙여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운재' 영역. 하지만 이미 의사들에게 년덜머리가 난 엄마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 머릿속 편도체를 아몬드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 '나'의 아몬드에 문제가 생겨 나타난 증상으로 알맞은 것에 ✓ 표를 해 보세요.

- 말을 만들어 내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헛갈려 한다.
- 지능이 크게 저하되어 두려움을 모르고 매우 용감하다.

● [보기]를 읽고 내가 '나'의 엄마라면 '나'를 위해 어떤 말을 전지에 붙이고 싶은지 생각하여 그 내용을 써 보세요.

보기

엄마는 색종이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쓴 다음 커다란 전지에 그것들을 일일이 붙였다. 벽을 장식한 전지 위엔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다.

- 차가 가까이 온다. → 몸을 피하거나, 가까워지면 쫓는다.
- 사람이 다가온다. → 부딪히지 않도록 한쪽으로 비켜선다.
- 상대방이 웃는다. → 똑같이 미소를 짓는다.

● 전지에 붙이고 싶은 내용:



창비교육 문해력 자료실

창비교육 문해력 자료실(books.changbiedu.com/home/literacy)에서 아이의 문해력을 점검하고 다양한 문해력 활동 자료를 만나 보세요!



- 문해력 진단지
- 소리 내어 읽기 음원 자료
- 어휘 활동지, 서술형 활동지
- 문제 은행
- 활동 예시답



※ 이 신문에 실린 활동의 예시 답은 창비교육 문해력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